

# 갈취 당하는 '농민의 피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부도나 농산물 유통회사·홍소공업체의 대금 결제 지연, 사기행각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 등에서 빌려 쓴 농자재 대금과 용자금 등이 연체되면서 상당수 농민들이 울 농사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A같은 농산물 사취사건은 영암·해남·강진 등 전남 서남부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일 영암경찰과 피해 농가들에 따르면 지역 농가 100여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영암 군서면 양장리 소재 모 민간 RPC에 15억원 상당의 벼를 납품한 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암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건수만 70여건에 피해액이 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접수하지 않은 피해 농민이 80여명에

## 미곡처리장 부도 100여명 15억 피해 농산물 유통회사선 납품대금 떼먹어

### 영암·해남 등 농민들 용자금 연체 고통까지

달한데다 추가 피해액도 7억여원에 이르는 등 전체 피해액은 15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남의 한 마을은 농민 10여명이 2억3천만원대의 피해를 당해 마을 전체가 올해 영농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시름에 잠겨있다. 농민 A씨는 "지난해 10월 4만8천원에 거래되던 40kg들이 벼 한 포대의 가격을 2천원씩 더 준다고 해 관 것인데 마을 전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지난해 빌려 쓴 자재값과 농협 용자금 대금을 갚지 못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지었다.

경찰 조사결과 RPC업자 홍모(37)씨는 지난해 초 해당 RPC를 인수한 뒤 농가로부터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벼를 외상으로 매입한 뒤 부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래처에서 의상값으로 6억여원을 받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 농민들은 홍씨의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피해농민은 "홍씨가 서울 거주자인데다, RPC를 인수한 첫 해에 이같은 피해를 냈다"면서 "특히 벼 매입 대금을 시중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부도를 낸 것은 고의적이 아니냐고 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도 농민 수십명은 지난해 9월 서울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자 박모(39)씨에게 7천 500만원 상당의 흑미 5kg들이 5천포대를 납품했다가, 7개월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 농민 채모(35)씨는 "홍소공에 판매를 해 주겠다고 말해 믿고 준 것인데,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진도지역에서 이같은 농산물 사기를 입은 농민이 한 두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석환 영암경찰서 지능팀장은 "매년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해 주겠다고 납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영암·해남=박진표기자 lucky@

## 기계에 끼여서...

### 반죽기·승강기 사용중 사망·부상 잇따라

작업 중이던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오후 6시47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모 식당 2층 주방에서 일하는 박모(여·46)씨가 주방 승강기에 머리가 낀 채 숨져있는 것을 동료 종업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박씨가 식당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음식운반용 승강기를 통해 음식을 나르다 승강기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함평군 월야면 모 공장에서 만두소를 만들던 장모(여·63)씨가 반죽기기에 손목이 끼여 절단됐다.

또 지난 1월에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 C 중곡음식점 주방에서 주인 감모

(55)씨가 밀가루 반죽기에 몸이 끼여 파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각각 작업을 하고 있던 기계에 고무장갑과 옷소매가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기계사고 출동건수는 30건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었다.

허성구 동부소방서 구조대장은 "기계작업을 할 때 열령한 장갑이나 옷을 착용하는 것은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결과"라며 "민약 기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기계의 전원 차단하고, 사고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가려준 뒤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나원침 (7450) 김종두



## 전쟁 피랍 北 주민 재산권 인정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한국전쟁때 피랍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현 판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 사는 A(81)씨의 법정대리인인 둘째딸이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대지 318㎡와 밭 132㎡를 소유한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말소 등기' 소송에서 "김포시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1년 전쟁 때 북한으로 피랍해 살고 있는 A씨는 1977년 부인 B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터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 B씨를 만나면서 실종선고도 취소됐다.

이에 앞서 B씨는 지난 1968년 A씨 소유의 땅을 C씨에게 팔았으며 이 땅은 C씨의 사망으로 1978년 C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C씨가 1968년 B씨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지만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북한에 살고 있는 A씨가 땅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나 B씨에게 매도를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납북자 문제 해결 소홀 정부 직무유기 아니다”

정부가 6·25전쟁 때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소홀히 했다고 납북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6·25전쟁납북민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15명이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을 게을리했고 납북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지 않은 만큼 총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국가)가 납북자 귀환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북한의 신검절차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납북관계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다중의 건축·산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개 짖는다” 이웃에 주먹질

“개 짖는다” 이웃에 주먹질... “개”가 소란스럽게 짖는다”며 이웃집에 돌을 던져 기와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5일 이웃을 폭행하고 기와를 파손한 김모(5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밤 11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사는 이웃 이모(38)씨를 만나 “개가 매일 짖어대는 바람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시비 끝에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폭행 사건 이후 이웃집 개가 또다시 짖자 이씨의 집에 서너 개의 돌을 던져 기와 두 장을 깨트렸는데, 경찰에서 “이씨에게 수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등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나 있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아파트 단지 돌며 21차례 상승 절도

광주북부경찰은 5일 도심 아파트 단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최모(31·남구 진월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에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H아파트 송모(여·41)씨의 집에 들어가 시가 18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터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송씨 집에 혼자 있는 딸 설모(11)양에게 수도검침원이라고 속여 들어간 뒤 설양에게 욕조에 물을 받아놓도록 시켜 시선을 돌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횡단보도 손들고 건너요”

‘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박돈희 전남대 교수)은 이날 문흥초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로횡단’ 등에 대해 교육했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광주 문흥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들이 5일 오전 ‘차량정지’를 뜻하는 노란색 ‘엄마손’을 들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허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13명 적발

광주지검 수사과는 5일 허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이용해 거액의 임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조경업자 박모(53)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7월 4일께 왕빛나무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

으면서도 1천67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꾸민 영수증 등 허위 영수증 4장을 광주 산림조합에 제출해 임업정책자금 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경업자 최모(59)씨는 2006년 2월 화순군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매도인으로부터 화순군 한천면

임야 3만3천521㎡를 2천300만원에 매수했음에도 1억5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뒤 정책자금 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나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받은 정책자금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등으로 총 6억8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ajncare.co.kr 062-233-5119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비타민 C·E 셀레늄, 아연)보강! 피로는 풀고, 피부건강은 지키고-아로나민 씨플러스